“예술과 맞닿은 무산 스님 정신 계승해야”

5월 30일, 무산문화대상 시상식
권여선·양성원·이태석 재단 수상
“예술문화발전 촉매 역할 되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5월 30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2회 무산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문학 분야 소설가 권여선, 예술 분야 첼리스트 양성원, 사회문화 분야 이태석 재단에 상을 수여했다.

무산문화대상은 한국문학과 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우리 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이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야에서 5명씩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3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문학 부문 수상자 권여선 소설가는 작품 속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응시하면서도 연민과 공감의 끈을 놓지 않는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여선 소설가는 “3월 중순, 건강상 위험한 상황을 겪으며 삶과 죽음에 대한 상념에 있을 당시 무산 스님과 신경림 시인의 대화를 담은 ‘열흘간의 대화’라는 책을 읽으며 아픔 이겨냈다”면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가라는 의미로 이 상을 받은 것 같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예술 부문 수상자 양성원 첼리스트는 한국 문화예술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고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와 예술적 영감을 대중에게 전해왔다. 양 첼리스트는 “수상을 계기로 무산 스님에 대해 공부하면서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욱 선명해짐을 느꼈다”면서 “인간의 내면과 시대의 흐름을 성찰하는 예술, 다음 세대와 호흡하며 이어갈 수 있는 예술을 위해 조용히 정진하겠다. 예술이 지닌 고유의 가치와 울림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문화 부문 수상자 이태석 재단은 다양한 봉사 활동과 지원사업으로 상생의 정신과 나눔의 고결한 의미를 사회에 전파하고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구수환 이태석 재단 이사장은 “이태석 신부의 정신이 종교를 뛰어넘어 사랑, 섬김, 생명 존중 부분 등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았다는 점이 놀랍다”면서 “이 상은 재단이 앞으로 사회에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원과 무산 오현 스님의 부도탑을 축소해 제작된 상패가 수여됐다.

권영민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 위원장은 “무산 조오현 시인은 평생 수도생활을 하며 사람과 사회, 종교 간 벽을 허물고 이념의 경계를 건너뛴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다”면서 “무산 스님의 삶을 기리며 제정된 무산문화대상이 우리 사회 예술문화발전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재단, 라오스서 ‘부처님 자비’ 실현

5월 25~28일, 부처님 이운식
현지 아동 쾌유 평안 발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5월 25~28일 라오스 지부에서 부처님 이운식을 봉행하며 현지 아동들의 쾌유와 평안을 발원했다.〈사진〉

복지재단 사무처장 덕운 스님이 함께한 이번 이운식은 한국에서 모셔간 약사여래불을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라오스 지부에 약사여래불을 봉안해 라오스 난치병 어린이들의 완치와 평안을 발원하는 의미를 더했다.

덕운 스님은 5월 27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라오스국립아동병원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라오스국립아동병원장 닥터 싼야봉 우아 팅팁, 부원장 닥터 씨암판 아카봉 등 병원 관계자들과 120여 명의 어린이들이 함께했다.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과 후원금 전달식을 시작으로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개회식에서 사무처장 덕운 스님은 아픈 아이들의 빠른 쾌유를 발원하는 기도를 올리며 “몸이 아픈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활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니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면서 “밝은 웃음으로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열심히 무대를 꾸며준 모든 어린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 앞으로도 늘 오늘처럼 환한 웃음 잃지 않도록 재단이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덕운 스님은 입원 중인 환아들을 직접 찾아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2011년부터 라오스 지부를 운영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사진제공=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순직 군승 헌신 기리자

군종특별교구, 6월 5일 현충원 참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가 6월 5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직 군승 묘역을 참배하며 군포교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참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산화한 순직 군승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을 비롯해 종오 군승, 정광 군승(국방부 군종정책과), 원경 군승(원광사), 원상 군승(호국광명사), 혜총 군승(충정사), 혜운 군승(통해사), 종학 군승(정각사) 등이 함께했다. 김내영 기자

자제공덕회, 폐허 된 동아프리카 구호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등에
긴급 식량 · 의약품 지원


자제공덕회 자원봉사자들이 사이클론 피해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한 뒤 합장 반배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자제공덕회

지난 5월 30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Buddhistdoor Global)’은 자제공덕회가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동아프리카 지역 긴급 구호에 나선 소식을 전했다.

2025년 3월 상륙한 열대성 사이클론 주드는 최대 풍속 120km/h, 강수량 2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해 마다가스카르 등 3개국에 홍수와 기반 시설 붕괴를 초래했다. 유럽연합 유럽인도지원청(ECHO)에 따르면 3개국에서 약 42만명 이상의 주민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고 최소 16명이 사망했으며 1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자제공덕회는 마다가스카르에 20여 명의 긴급구호팀을 파견해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5차례에 걸친 식량을 배급, 1200가구에 쌀을 지원했다. 가구원 수에 따라 10~20kg의 쌀을 배분해 식량난 해소에 힘썼다. 이어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해 쌀, 콩, 옥수숫가루, 식용유, 땅콩, 소금을 포함한 포괄적인 식량 꾸러미를 7000가구 이상에 전달했다.

말라위에는 자원봉사자 36명을 파견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주거 재건과 농업 회복을 위한 기반 물자 배포에 나섰다. 또한 식수 정화제, 모기장, 위생용품 등을 포함한 구호 꾸러미를 배포하며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나섰다.

자제공덕회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있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불교환경연대, 낙동강 순례하며 문수 스님 추모

5월 29~31일, 낙동강변 걸으며
4대강 재자연화 염원하는 법석

4대강 보 건설을 반대하며 뭇 생명을 위해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15주기를 추모하고 4대강 재자연화를 염원하는 법석이 마련됐다.〈사진〉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는 5월 29~31일 2박 3일간 구미 동락공원에서 낙동강까지 걸으며 ‘문수 스님 15주기 추모재 및 4대강 생명살림 낙동강 순례’를 진행했다. 본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을 비롯해 광주전남, 부산, 울산, 전북지부 상임대표 스님과 활동가 및 회원 27명이 참여했다.

순례 첫째 날인 5월 29일에는 칠곡보 생태공원에서 입재식을 갖고 구미시 동락공원까지 낙동강을 따라 걸었다. 참가자들은 〈자애경〉과 ‘낙동강 순례 발원문’을 함께 읽으며 걸음을 이어갔다. 하루를 마감하며 소감을 나



눌 때는 자연성을 잃어버리고 호수처럼 변해버린 낙동강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둘째 날에는 구미보까지 걸으며 4대강 사업으로 생물다양성을 잃은 낙동강의 모습을 확인했다.

마지막 날은 군위로 행했다. 15년 전 문수 수님이 소신공양한 위천을 걸은 순례자들은 스님의 부도탑이 있는 지보사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법만 스님은 “문수 스님의 뜻이 잘 받들어져 낙동강 자연성이 회복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三歸依戒
제8회 삼귀의계
五戒
오계
수계대법회
2025. 7. 15 (음 6. 21)
화요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수계비 1인 5만원 복장 (상의) 흰색, (하의) 편한 바지
전계대화상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회주)
갈마아사리 심산범미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회장, 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효명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4~5대 회장, 혜원정사 회주)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태광명사 주지)
도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선덕)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미타선원 선원장)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내원정사 주지)
정관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원오사 주지)
인호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연수국장, 혜원정사 불교대학 학장)
행사 당일 YouTube 라이브로 생중계됩니다.
시청 방법 1.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에서 ‘YouTube’ 검색 후 설치
2. 검색창에서 ‘부산불교방송’ 또는 ‘제8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검색
주최 · 주관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문의 사무국 051)501-7554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온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